

Editorial



특집 시리즈 I. 노동시간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다

정최경희 ¹, 장태원 ², 강모열 ³, 김정원 ⁴, 김은아 ⁵

- ¹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과
- ²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 ³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⁴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 ⁵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Received: Jun 15, 2023
Revised: Jun 25, 2023
Accepted: Jun 26, 2023
Published online: Jul 6, 2023

*Correspondence:

Kyunghee Jung-Ch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5 Magokdong-ro 2-gil, Gangseo-gu, Seoul
07804, Korea.
Email: jungchoi@ewha.ac.kr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s

- 정최경희
- <https://orcid.org/0000-0002-9800-0994>
- 장태원
- <https://orcid.org/0000-0003-2624-3257>
- 강모열
- <https://orcid.org/0000-0002-1682-865X>
- 김정원
- <https://orcid.org/0000-0003-3836-8890>
- 김은아
- <https://orcid.org/0000-0002-8582-234X>

Compe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competing interests.

적절한 노동시간 형태(Adequate working time arrangements)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필수요소이다.¹ 한국에서는 1953년 5월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법규정이 포함되었는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연적인 성격이 강해, 한국의 경제성장 초기를 포함하여 수십년 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였다.² 1988년 연간 노동시간은 2,910시간에 달했고,³ 198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된 후에야 노동시간은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⁴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2003년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18년 법정 최대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0시간으로 여전히 길어 핀란드, 노르웨이의 1960년대 후반, 미국, 프랑스의 1970년대 초반, 일본의 1990년대 초반 당시 수준에 머물러있다.⁵ 이러한 긴 노동 시간은 한국 노동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⁶ 이 발표는 한국 사회에 노동시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점화하였다. 여러 개편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연장 근로 관리 단위의 변경 건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노사 합의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었던 노동시간이 풀리면서, 한 주에 69시간(6일동안 매일 11.5시간 근무, 예) 오전 9시-오후 1시 근무, 1시간 점심시간, 오후 2시-6시 근무, 30분 휴식, 저녁 6시 30분-밤 10시 근무)까지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지면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뚜렷한 건강장애가 예상되는 주당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방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노동 시간 형태의 불규칙성을 증가시킬 위험과도 연결된다.

이에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OEM)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노동시간에 대한 특집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노동시간의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학술적이고 객관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ung-Choi K; Writing - original draft: Jung-Choi K; Writing - review & editing: Jung-Choi K, Jang TW, Kang MY, Kim J, Kim EA.

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에 출판되는 특집 시리즈¹에서는 한국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결정요인인 노동시간의 현황을 집중 조명한다.

첫번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원고는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우려를 전한다.⁷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한국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학술단체로서, 노동 시간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중심정책(Health in All Policies)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좋은 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2023년 3월 22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⁸도 참고할 만하다.

김과 민⁹은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해 한국의 노동시간 현황을 분석하고 근로자휴가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이용하여 휴일 사용 현황을 소개한다. 2020년 약 6%의 노동자들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에서는 11.6%가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다. 법적 규제의 미비가 이러한 격차의 한 원인임을 지적한다.

장¹⁰은 노동시간 형태의 하나인 교대제의 한국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임금노동자 중 교대근무자가 약 11%~14%, 24시간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이 약 58시간, 고정야간근무자의 노동시간이 약 50시간임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야간근무 규정을 비교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네번째 문과 김의 연구¹¹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싣는다. 산업안전보건, 법학, 사회학 전문가 6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실시한 조사 결과,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야간근로 규제, 연장근로 해소를 위한 임금보장, 특수고용 근로시간규정 신설,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상한제 적용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대한 노동 및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의 최신 견해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시사한다.

마지막 양 등¹²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다룬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군의 근골격계 통증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노동이 결합할 때, 근골격계 통증 위험이 세 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한 축이 기업 상황에 따라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이다.

본 특집 시리즈¹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계층별로 장시간 노동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은 지나치게 길다.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보다는 노동시간 격차 해소 정책, 야간노동 규제, 연장근로 해소를 위한 임금 보장 등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초래하고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OEM의 특집 시리즈¹의 주옥 같은

연구들을 독자들이 일독하기를 권하며, 본 시리즈가 인간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책 방향이 합리적으로 수정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Decent Work Indicators: Guideline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al and Legal Framework Indicators. 2nd version*. Geneva, Switzerland: ILO Publications; 2013.
2. Jang MK. Modernization and women laborers in the 1970s and 1980s. *Econ Soc* 2004;(61):106-34.
3. Kim YS. Conditions of working hours and 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KLSI Issue Pap* 2017;2:1-67.
4. Lee WD. *Labor in Korea 1987-2002*. Seoul, Korea: Korea Labor Institute; 2003.
5. OECD. Hours worked (indicator).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Updated 2023. Accessed June 7, 2023.
6. Korean Government. Working hours system reform plan.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 Updated 2023. Accessed June 7, 2023.
7. Kang HT, Kim CJ, Lee DW, Park SG, Lee J, Youn K, et al. Statement by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on the proposed reform of working hours in South Korea. *Ann Occup Environ Med* 2023;35(Special Series I):e17.
CROSSREF
8.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Posi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on the working hour system reform plan. https://ksoem.or.kr/notice/statement_230321/. Updated 2023. Accessed June 7, 2023.
9. Kim I, Min J. Working hours and the regulations in Korea. *Ann Occup Environ Med* 2023;35(Special Series I):e18.
CROSSREF
10. Jang TW. Working hours and the regulations for night shift workers. Working hours and the regulations in Korea. *Ann Occup Environ Med* 2023;35(Special Series I):e19.
CROSSREF
11. Moon D, Kim H. The impacts of working time flexibiliz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 expert survey. *Ann Occup Environ Med* 2023;35(Special Series I):e20.
CROSSREF
12. Yang M, Myong JP, Lee J, Park MY, Kang MY. Association between irregular working hour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pain: results from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n Occup Environ Med* 2023;35(Special Series I):e21.
CROSSREF